

광주에서 글로벌 퍼포먼스를 만나다

퍼포먼스 아트 장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 여건에서 30여년 가까이 퍼포먼스 외길을 걸어온 김광철(글로벌메이킹아트네트워크 대표) 작가는 지난해 50일간의 세계 아트 투어를 진행했다. 퍼포머 박경화 작가와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체코, 그리스 등 유럽 6개국 등 7개국에서 40여차례가 넘는 공연을 이어간 그는 즉흥성과 자유로움이 특징인 장르 특성을 살려 각 나라의 상징적인 공간, 길거리, 박물관과 미술관, 작가의 집 등에서 관람객을 만났다.

두 작가는 개인&콜라보 공연을 비롯해 현지 작가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면서 광주 퍼포먼스 역량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연스레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이외에도 수년 동안 해외 공연을 진행하며 많은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김 작가는 광주에서 글로벌 퍼포먼스 아트 프로젝트 진행을 꿈꿔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글로벌메이킹아트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글로벌아트투게더: 마주보다(Global Art Together: Face to Face)' 프로젝트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남구 이강하미술관(21일), 공동 예술의 거리(22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일대(24-25일) 등 지역 곳곳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획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활발히 작품활동과 기획을 하고 있는 큐레이터와 아티스트를 초청했다. 참가자는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한국 등 6개국 아티스트와 큐레이터 10명이다.

'글로벌아트투게더:마주보다' 김광철 작가 프로젝트 진행
독일 등 6개국 아티스트 초대 '라이브 퍼포먼스아트'
유튜브 라이브 방송·페스티벌·세미나 등도 열려
20~25일까지 공동 예술의 거리 등서

핀란드 탐페레에서 매년 국제적인 아트페스티벌인 '퍼포먼스피에스타'를 열고 있는 큐레이터이자 아티스트 사미 마알라손, 미국 뉴욕에서 전문 퍼포먼스아트 갤러리 'Grace ExhibitionSpace'를 공동 운영하는 큐레이터 질 맥더미드와 에릭 호카슨, 스페인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독립큐레이터 프란세스카 카를롤라 등이며 한국 퍼포먼스 아티스트 문재선과 이산(정문성)을 초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라이브 퍼포먼스 아트를 선보이며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이벤트와 페스티벌 등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국제적인 예술 나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퍼포먼스아트 아카이브 전시가 열리며 시민들이 교류의 주체가 돼 참가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렌드 멤버쉽 33'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019년 광주문화재단 지역협력형 교류지원사업에 선

정대 열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현 시대에서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 출발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2021년과 2022년 유럽 대륙에서 전 세계 아티스트와 큐레이터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무빙뮤지엄:홍익인간 (Moving Museum for the People)'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예술로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무빙뮤지엄:홍익인간'은 국가와 대륙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임을 인식하며 기획된 한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김광철 작가는 "신체와 정신이 상호 조합된 순수예술 장르로서 '퍼포먼스아트6(신체미술)'가 갖는 교감과 소통에 대한 가능성을 예술가들의 표현을 통해 철학적 사유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9432-886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탈리아 출신 리카르도 마트라카스 작가의 퍼포먼스 모습.

하늘을 나는 사람

김종일 '상상타이머' 전, 23일까지 양림미술관



상상타이머

김종일 작가의 작품은 상상 속 세계로 관람객을 이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닷속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친구가 돼 여행을 떠난다. 꿈의 나라를 펼치게 해주는 '타이머'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떠나는 여정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어릴 때부터 증기 기관차의 기차 바퀴처럼, 무언가 맞물려 돌아가며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의 작품엔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늘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상'처럼 상상속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김종일 작가 초대전이 오는 23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상상 타이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만화적 느낌과

유풍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풍경들은 다른 재료에 비해 두께 조절이 가능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얼핏 금속처럼 보이는 바퀴와 태엽 장치 등도 모두 나무로 작업했다. 그는 나무를 손으로 켜 판넬을 제작하고 그 위에 조각들을 붙였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자르고, 깎고, 조립해 만든 물고기와 새, 달과 별은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과 유풍한 표정이 어우러져 흥미롭다. 앞으로는 바퀴가 직접 돌아가도록 모터를 부착하는 작업도 진행해볼 생각이.

전시장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의 작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도 걸렸다. 그의 일러스트는 현재 시판중인 빙그레 원피스 우유, 웅진씽크빅 등에 실려 있고 서울시의원 등의 캐릭터 작업도 진행했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무등미술대전과 광주시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아트그룹 'LIVE'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작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휴식 중 하나가 상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을 상상하며 작업한다"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예술의 역할 중 하나인 만큼 밝고 유풍한 작품을 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675-700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8일 한창호 초청 미술관아카데미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미술관 아카데미' (매월 셋째주 화요일) 6월 강좌가 18일 오후 3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달 강좌는 한창호(사진) 영화평론가로 영화와 미술의 다양한 만남을 보여주는 '영화와 미술-영화는 미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씨는 이번 강좌에서 영화와 미술을 주제로 영화를 분석하고 영화의 장면들이 담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에 시선을 집중, 영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의 세계를 교차해서 들려주게 된다. 특히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영화감독들이 스크린 위에 펼쳐 보이는 영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씨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로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 '영화, 미술의 언어를 꿈꾸다' 등이 있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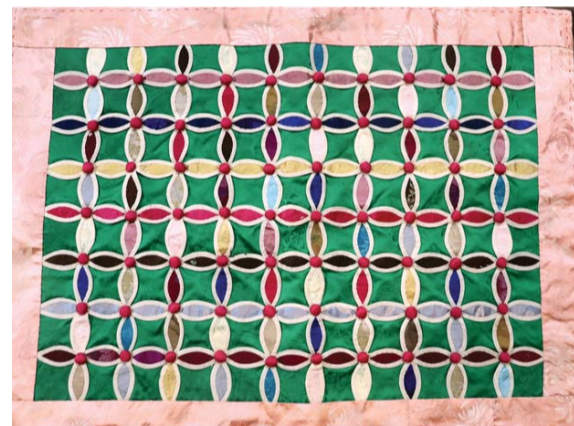
'오래된 보자기'

8월 10일까지 비움박물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여름가을겨울 특별전을 열어온 비움박물관이 여름을 맞아 오는 8월 10일까지 여름 기획전 '오래된 보자기'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보자기에 깃든 예술성과 다양성'이다.

주요 전시품은 다채로운 모양과 색의 향연인 조각보와 아기를 감싸는 아기보를 비롯해 물건의 바닥에 까는 받침보, 위를 덮는 덮개보, 노래개 등을 싸는 노래개보, 상을 덮는 상보, 옷감을 싸는 옷감보, 빨랫감을 싸서 다듬이질 전에 발로 밟는 데 쓰이던 빨랫보, 이불을 싸는 이불보 등 쓰임새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보자기 약 200여점이다.

이번 비움 박물관의 전시는 단어 '보'가 갖는 다양한 뜻 중에서 '물건을 싸는 보자기(褙)'라는 뜻과 함께 독을 쌓아 물을 담은 '보(甁)', 건물의 지붕을 지탱하는 '들보



(樑)'라는 뜻을 중심으로 보자기가 갖는 상징성을 조명했다. 생명의 근간인 물을 감싸 농사를 돕는 보와 삶이 진행되는 공간인 집을 지탱하는 들보의 뜻을 어머니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감싸는 보자기와 연결해 보자기의 쓰임을 재해석했다.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GB 작가 탐방' 20일 조현택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을 20일 오후 2시 조현택 작가의 작업실에서 진행한다. 사진 신성한 관객과 지역 작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이날 조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작가의 작업 세계를 논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조현택 작가는 과거부터 형성되고 누적된 이미지들로부터 학습된 인간의 꿈과 욕망, 행동패턴 등을 투영하거나, 활영한 공간과 주변 풍

경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사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작가는 '내가 기억하는 것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의 양지', '빈 방', '드라마 세트장' 등 다양한 시리즈를 선보여왔다. 조 작가는 동신대학교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과 미술사학을 공부했다. 2012년과 2016년에는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리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2년 제9회 광주비엔날레에는 본전시 참여작가로 선정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시리즈를 선보였다. 신정마감 18일, 문의 062-608-4232. /김미은 기자 mekim@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IPALG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보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